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법과정치) 영역 분석

1. 출제 경향

* 출제 경향 특징

1. 편중된 단원 없이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되었다.
2. 기본적인 개념 및 원리를 묻거나 법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주로 출제되었으나 응용형 문항도 출제되었다.
3. 자료를 분석·탐구하는 고난도 문항들이 여전히 출제되었다.
4.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탐 영역의 법과정치 과목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난이도의 경우 지난 해 수능과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 높은 난이도로 약간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경우 단원별 안배는 잘 이루어졌으며, 문항의 형태상으로 부정형 문항이 없고 정답형 문항이 주를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 확인 문제와 중요한 개념을 파악하는 문항이 많았으며, 기본 개념을 응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력 및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문제와 법적 사례를 분석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의 기본 개념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적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EBS 교재와의 연계는 70%로 개념 원리 활용, 자료 상황 활용,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등 골고루 이루어졌다. 두 개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새롭게 변형해 제시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어 연계 체감도는 다소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난이도

※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2017학년도 수능과의 시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비교	2017학년도 수능 비교
법과정치	약간 어려움	약간 어려움

법과정치의 경우 다소 쉬웠다고 평가되는 2017학년도 수능보다 어려웠으며, 2016년 6월 시행된 모의평가보다도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특히 2017학년도 수능의 정답률이 높은 문항이 매우 많았던 점을 의식하여 고난도 문항을 세 문항 정도 배치시켰으며, 고난도 문항의 경우에도 두 개 이상의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도록 구성하였다. 교과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여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들이 출제되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과정치의 법 부분에서는 주변의 생활 사례나 언론 매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시

사성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과 내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 상당한 고난도 문항들이 출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정치 부분 문제의 경우 다소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었다. 특히 정치 문항의 경우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고, 법률 분야의 경우 형사 절차의 단계별 요건과 효과, 부동산 매매의 과정을 분석하여 단계별 권리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 등 다양한 사례를 법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한 문항이 있어 푸는데 어려움 겪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 EBS 교재와의 연계 분석

문항 번호	연계유형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1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법과정치	14
2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법과정치	78
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법과정치	17
4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법과정치	35
8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법과정치	116
9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법과정치	66
10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법과정치	133
11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법과정치	60
13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법과정치	105
15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법과정치	165
16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법과정치	140
18	개념 원리 활용	수능특강 법과정치	189
19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법과정치	141
20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수능특강 법과정치	179

4. 대표 연계 문항

6월 모의평가 문항 13번	EBS 수능특강 법과정치 105쪽 8번
<p>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p> <p>고등학교생 갑(17세)이 부모(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전자 대리점에서 고가의 노트북을 주문하였고, 대리점 사장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다. 다음 날 갑의 동갑내기 이성 친구 병은 갑으로부터 그 노트북을 선물로 받았다.</p> <p>①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의 부모는 갑의 동의가 없으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갑의 부모는 갑이 병에게 노트북을 준 행위를 갑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이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하였으므로 을은 먼저 판매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을은 미성년자인 갑에게는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를 요구할 수 없다.</p>	<p>0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p> <p>갑(18세)은 부모님이 사 준 고가의 노트북을 한 달 정도 사용하다가 용돈이 부족해지자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을(20세)에게 팔았다. 얼마 후에 갑의 아버지 병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p> <p>보기</p> <p>ㄱ. 병은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ㄷ. 갑은 병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을은 병에게 갑과의 계약을 승인할 것인지를 물어볼 권리가 있다.</p> <p>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p>

6월 모의평가 문항 2번	EBS 수능특강 법과정치 78쪽 2번								
<p>2. 기본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10px 0;"> <p>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에 이어 이번에는 (가), (나), (다)를 알아볼까요?</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학습 주제: 기본권의 종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기본권</th> <th style="width: 85%;">관련 헌법 조항</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후략)...</td> </tr> <tr> <td>(나)</td> <td>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부담권을 가진다.</td> </tr> <tr> <td>(다)</td> <td>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td> </tr> </tbody> </table> </div> <p>① (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다. ② (나)는 국민 주권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③ (다)는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을 가진다. ④ (가)는 (나)와 달리 현대 복지 국가에서 중시되기 시작했다. ⑤ (나)는 (다)와 달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p>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가)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후략)...	(나)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부담권을 가진다.	(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p>02 헌법 규정 (가)~(다)에 나타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p> </div> <p>① (가)에 나타난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② (나)에 나타난 기본권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자유를 지향한다. ③ (다)에 나타난 기본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④ (가)에 나타난 기본권과 달리 (나)에 나타난 기본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⑤ (가)에 나타난 기본권은 (나), (다)에 나타난 기본권과 달리 소극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p>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가)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후략)...								
(나)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부담권을 가진다.								
(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5. 2018학년도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끝났다. 수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평가원 시행 모의평가를 정리해 보면 올 해 수능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1) 상위권 학습 전략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탐구 과목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2016년 6월 모평이나 2017학년도 수능과는 달리 6월 모평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며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동시에 어려운 문항 위주로 문항 푸는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중·하위권 학습 전략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E탐구 영역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매일 일정 시간을 탐구 영역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BS 교재 연계율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교재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문제들을 축소, 확대, 변형하는 학습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전 적응력과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문제 풀이에 임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을 EBS강의와 오답노트 등을 통해 보충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변의 생활 사례나 언론 매체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이 문제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